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관리만족도

New-generation Married Women's Joint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Home Management Satisfaction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정 우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박 은 아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 Jeong Woo, Lee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Doctoral Course : Eun A, Park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 of joint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on the home management satisfaction of new-generation married women, which will issu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new-generation home life. The sample was composed of 371 married women under 39years old, selected by age and the local distribut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New-generation married women's joint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y degree of communication, perception of the adequacy of resources, perception of the level of living. Home management satisfac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y state of employment, existence of children, sex role attitudes, degree of communication, perception of the adequacy of resources, perception of the level of living.

2) The more a couple participated in decision-making about eating and children, the higher level a new-generation married women showed in home management satisfaction.

3) The main variables predicating new-generation married women's home management satisfaction was perception of the adequacy of resources, perception of the level of living, gender role attitudes, existence of children, joint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bout eating and children. They accounted for 36% of the variance.

I. 서론

가정관리시 의사결정은 관리의 한 단계 혹은 과정에서 나타나며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가정을 역동적으로 관리하려면 끊임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복잡다변해 가는 현 사회의 상황들과 맞물려 현대의 가정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다양해짐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감을 증진시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관리하는 공동주체인 부부가 함께 가정생활의 제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서로 의논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UN은 1994년을 '세계 가족의 해'로 정하고, 민주사회 건설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민주화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동적 구조, 평등한 권리와 권력의 사용, 가사일의 공평한 분배, 자녀양육의 공동책임, 공동의사결정 등을 포함하는 '동반자적 가족' 모델을 제시하여 현대 가정생활에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미국의 여성학자 Kimball (1983)도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위한 부부의 의사결정 공유를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와 달리 1970년대 이후 시기를 주요 성장기로 보낸 현재의 신세대 부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경험하면서 비교적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강한 개성을 지녔으며, 진취적·도전적·활동적이고, 자유로운 사고(경향신문, 1996. 1. 4)와 근대적이고 평등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기성세대들에 비해 비교적 서로 동등한 입

장에서 가정의 제반 문제를 함께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부나 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정생활 영역내에서 의사결정 참여정도 와 그에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 또는 의사결정 참여정도와 산출 결과인 결혼만족이나 생활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그 밖에 중년기 주부의 의사결정(이정우·정진희, 1998), 노인의 의사결정을 다룬 연구가 수 편(송주은, 1993; 여운경, 1993; 지금수·김현지, 1999) 있을 뿐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가치관과 행동 특성을 지닌 신세대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관리 산출 결과로서 가정관리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의 중요요소인 가정생활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수행 및 부부 공동의 의사결정 수행은 궁극적으로 가정관리 수행 결과로 나타나는 가정관리만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역 세력인 신세대 가정관리자의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가정관리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가정관리자로서 신세대 기혼여성들 및 기혼남성들에게 가정생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부부공동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고양케 하여 현대 사회와 가정에 바람직한 신가정관리의 방향을 제시해봄으로써 신세대 기혼여성들의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신세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세대의 개념 및 특성

세대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인 동시에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동일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함으로써 역사적, 사회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사한 정서, 의식구조, 행위유형, 생활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결합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박재홍, 1995).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생애주기모형과 사회적 상황 및 공통 경험의 공유를 중시하는 경험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생애주기와 사회적 경험이 비교적 조용하다는 견지에서 이 두 방법을 모두 포괄하여 기성세대와 신세대라는 분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신세대란 전쟁 후에 출생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려왔고 출산을 저하와 핵가족화로 인해 소규모 가족에서 사회화 되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문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세대로 실제적으로 볼 때 연령상으로 35세 이하, 역사적 사건상으로는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라 할 수 있다(조은정, 1993). 김명자·안선영(1996)도 1960년대에 출생하여 연령으로는 35세 이하이며, 비교적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핵가족에서 성장하면서 합리주의·평등주의·개인주의적 가치를 지니며 개성을 중시하는 세대로 신세대를 정의하였다. 한편 정현섭·박영숙(1994)은 신세대를 1954년 이후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젊은 연령 집단으로서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자녀로 두고 있고 60-70대의 노인을 부모로 둔 30대를 주축으로 하여 40대 초반에 들어선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이와같이 사회 각 부문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성장한 신세대들은 비교적 자기주장이 확실하고, 강한 개성을 지녔으며, 진취적·도전적·활동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있으며(경향신문, 1996. 1. 4), 이 밖에도 이기적·개인적이고, 자유분방하며,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한국일보, 1994. 9. 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1960년대에 출생하여 1970년대의 경제성장과 1980년대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생활해온 신세대로서의 특성과 가정의 관리자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39세 이하의 신세대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그에 따른 가정관리만족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사결정 공동참여

의사결정은 관리를 구성하는 최소단위, 즉 관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마치 화학에 있어서의 원자와 같은 것이며 관리의 핵심적인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고(Bratton, 1955), 가족조직의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각 관리과정 전체에서 행해지며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행동의 주축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Paolucci, 1977). Gross 등(1980)은 의사결정이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규정하고 끄집어내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취할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가치와 목적에 의해 동기가 발생되고 표준에 의해 검토되어 자원의 사용과 창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Nickell 등(1976)은 의사결정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체 수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하였다.

의사결정에 관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온 연구는 70년대 말까지는 주로 주부 또는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권력·권력구조·권위관계·권위유형 등의 용어로서 주로 가족권력구조의 측면에서 Blood와 Wolfe 등의 자원이론에 입각한 의사결정 유형(남편우위형, 부인우위형, 부부공동형, 자율형)을 분류한 연구(한남제, 1970; 최재석, 1971; 이한기, 1977)가 많이 이루어졌고, 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현재까지는 가정생활, 경제생활, 자녀문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기타 일반 가정생활영역에서 부부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일방참여, 공동참여)에 관한 연구(김운경, 1983; 이형실, 1985; 김성희, 1989; 강기연, 1989; 유주희, 1993; 하상희, 1994; 손현숙, 1995; 이정우·정진희, 1998; 이정우·강기연, 2000; 강기연, 2000)가 가장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편 의사결정 결과 보다는 의사결정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의사결정양식(인간중심형, 파업중심형)을 구분한 연구(임정빈, 1988; 홍은실, 1990; 박은아, 1994)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제반 가정생활영역에서 부부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정도를 살펴본 연구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는데, 90년대 이후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주희(1993)는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내용을 가정경제, 가사활동, 가족행사, 여가생활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부부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정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하상희(1994)는 의사결정을 가정경제, 주생활, 식생활, 의생활, 자녀문제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부부의 의사결정 공동참여를 살펴보고, 손현숙(1995)은 경제 및 주생활, 식생활, 의생활, 자녀문제, 여가생활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부부간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정진희(1998)는 가정경제, 주생활, 의생활, 식생활, 자녀문제, 가족행사, 여가생활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년기 주부의 의사결정 참여정도를 살펴보고, 강기연(2000)은 재정영역, 주생활 영역, 자녀관련 영역, 의·식생활 영역, 직업 및 여가영역으로 구분하여 맞벌이 부부의 의사결정 공동참여를 고찰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주부 또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 관련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비교적 자기주장이 확실하고, 강한 개성을 지닌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생활에서 의사결정 공동참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이들이 가정관리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가정관리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공동참여를 가정생활영역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가정생활에서 의사결정의 내용을 가정경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자녀문제, 가족행사, 여가생활 등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영역에서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정도가 가정관리 후 산출 결과로 나타나는 가정관리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

가정관리란 매일매일의 결정과 목적적 행동을 통해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간의 가치, 목표 그리고 표준에 의해서 자원을 관리하는 체계, 즉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리자가 가족성원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계획, 조정,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하며(이정우, 1981), 의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지시되고 결정되는 과정으로 단순한 가사수행 능력이 아닌 정신적인 과정이 중요시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가정관리만족도는 가정생활만족도의 하위개념으로 가정관리자가 관리활동을 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로, 관리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개인적 현상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두경자, 1991).

한편 가정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과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측정되어 왔으나 생활만족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Newton, 1979; Heck, 1983; 두경자, 1991; 임혜경, 1993; 홍성희, 1994; 성유진, 1995; 이명숙, 1996; 우이란, 2000)

가정관리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Newton(1979)은 욕구충족 또는 목표달성의 측정을 위해 관리만족도가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가족원의 금전을 관리하는 방법, 가족원이 원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의 양, 가족원이 가정에서 수행한 가사노동의 분담 정도 및 가사노동의 질, 여가와 오락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만족과 가족치로서의 중요도를 측정하여 가정관리만족도를 산출하였고, 가정관리행동, 가정관리만족도 및 생활만족도간의 정적인 관계를 입증하였다. Heck(1983)도 가정관리만족도를 가족자원 관리체계의 최종 산출로 규정한 후 주택의 청결성, 음식준비, 세탁의 청결성, 세탁되어있는 옷의 양, 음식의 양, 자유시간의 양, 금전의 양, 건강과 에너지, 자녀와 보내는 시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자녀의 성취도 등 11개 영역의 산출에 대한 주관적 만족정도를 가정관리만족도로 측정하였다.

국내 연구 중 두경자(1991)는 가정관리만족을 작업자가 관리행동을 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로 보고, Heck(1983)의 연구모델을 적용하여 이상에서 지적한 11개 영역에 대한 주부의 가정관리만족도를 산출하여 가정관리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최호숙(1991)과 임혜경(1993)의 연구에서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관리과정과 결과에 대해 취업주부가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가정관리만족도로 보고 가정관리만족도를 최종 산출변인으로 하여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만족 상태를 측정하였다.

한편 이명숙(1996)은 가정관리만족도를 가지지향성과 가정관리전략에 따른 최종 산출변인으로 보고 의·식·주·경제 및 가족원의 가사분담과 수행의 질, 자녀의 성취, 가족의 건강관리, 여가시간과 방법에 대한 가정관리 후 만족감으로 구성하여 가정관리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우이란(2000)은 가정관리만족도를 집안의 청결상태와 정리정돈, 식사준비시간과 상태, 세탁 청결도와 손질, 금전지출 정도, 월평균가계소득, 자산상태, 가정기구나 도구의 편리성과 효율성, 가족원들의 집안일 참여정도, 새로운 정보 사용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하여 인터넷 사용여부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정관리 과정의 최종 산출결과인 가정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반면 생활만족도의 하위개념이자 관리활동 후 관리자가 느끼는 관리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만족도를 가정관리 후 결과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라 정의하고, 의·식·주·경제 및 가족원의 가사분담과 수행의 질, 자녀의 성취, 가족의 건강관리, 여가시간과 방법에 대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신세대 기혼여성들의 가정관리 과정시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산출 결과로서 가정관리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4. 관련변인 고찰

신세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 공동참여 및 가정관리만족도 관련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관련변인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령에 따른 의사결정은 많은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최영애, 1982; 김윤경, 1983; 강기연, 1989; 유주희, 1993; 하상희, 1994; 이정우·강기연, 2000)고 나타난 반면, 손현숙(1995)은 주부의 연령은 의사결정 공동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주부의 연령과 관리만족도는 정적 상관이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Heck, 1983; 홍성희, 1994), 성유진(1995)의 연구에서는 20대 주부들이 30대 주부들보다 관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많은 연구에서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인의 공동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다(서병숙·임정빈, 1978; 최영애, 1982; 이형실, 1985; 강기연, 1989; 이정우·강기연, 2000; 강기연, 2000)고 보고하였으나, 반면에 손현숙(1995)은 주부의 학력은 의사결정 공동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또한 학력과 의사결정 공동참여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황효숙, 1978)도 있다. 한편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관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대부분 나타났으나(Heck, 1983; 최호숙, 1991; 홍성희, 1994; 성유진, 1995), 학력이 높은 경우 가정관리에 불만족한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이명숙, 1996)도 있다.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른 의사결정은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도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김윤경, 1983; 이형실, 1985; 강기연, 1989; 유주희, 1993, 손현숙, 1995)와 직업이 있는 주부가 부부의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최재석, 1971; 하상희, 1994)가 있다. 한편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른 관리만족도는 취업주부의 관리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두경자, 1991; 우이란, 2000)가 있는 반면, 취업주부는 시간계약으로 짧은 시간안에 여러 일을 처리하여 질적 관리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관리만족도가 낮다는 연구(조혜정, 1994)도 있다.

월평균소득은 의사결정 공동참여도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서병숙·임정빈, 1978; 하상희, 1994)와 부부의 공동 의사결정과 소득은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이형실, 1985; 강기연, 2000)도 있다. 한편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관리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최호숙, 1991; 임혜경, 1994; 홍성희, 1994; 성유진, 1995), 두경자(1991)의 연구에서는 소득은 관리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수에 따른 의사결정의 경우 김성희(1989), 하상희(1994)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부부의 공동 의사결정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의사결정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유주희, 1993; 손현숙, 1995). 한편 자녀수에 따른 관리만족도는 두경자(1991)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이란(2000)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없는 인터넷 사용 주부의 관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은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부가 공동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였고(Street, 1981; Ray, 1988; 이형실, 1985; 하상희, 1994), 성역할태도와 의사결정참여도는 무관하다는 연구(김윤경, 1983)도 있다. 한편 성역할태도에 따른 관리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주부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거나(이종숙, 1989), 부부 모두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취할 때(Philliber, 1992) 가정생활의 만족과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주부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 경우 가정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도 있다(윤경자, 1997).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공동 의사결정 참여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형실, 1985; 유주희, 1993; 하상희, 1994; 이정우·강기연, 2000; 강기연, 2000). 한편 이명숙(1996)의 연구에서는 가족간의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주부가 가정관리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적정인지도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원면에서 평등에 가까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상호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평등한 권력을 가

질 수 있으며(Scanzoni, 1982), 최규련(1993)의 연구에서는 자원인지도가 높을수록 부인이 느끼는 권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기연(2000)의 연구에서는 자원적정인지도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적정인지도와 관리만족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주부의 물질·인적자원에 대한 높은 인지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호숙, 1991; 김경숙, 1993; 장병옥, 1997; 이정우·윤현희, 1998; 전지원, 2000; 강기연, 2000).

생활수준인지도와 의사결정은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의사결정 공동참여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상희, 1994). 한편 생활수준인지도에 따른 관리만족도는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관리만족도가 높았고(우이란, 2000),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이정우·박은아, 1995; 이선화, 1996; 전지원, 2000), 소득적정감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숙, 1996; 이정우·정진희, 1998).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사결정 공동참여는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는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사결정 공동참여는 가정관리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에 대한 제변인(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 및 의사결정 공동참여)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선행연구를 기초로 주부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신세대 기혼여성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 월평균소득, 자녀유무 등 5개 변인의 총 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심리적 변인

성역할태도는 Osmond와 Martin(1975), 그 외 선행 연구(하상희, 1994; 장병욱, 1997; 전지원, 2000)의 연구를 토대로 총 10문항($\alpha = .66$)을 선정하여 구성하였고, 5점 Likert척도로 1점에 가까울수록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나타내고 5점에 가까울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나타낸다.

의사소통도는 Olson 등(1983), 김경숙(1993), 이명숙(1996)의 연구를 기초로 부부간의 대화만족과 일치, 대화 표현방법 등을 내용으로 총 5문항($\alpha = .88$)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5점에 가까울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도가 높고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적정인지도는 자원보유에 대한 인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Rowland, Dodder와 Nickols(1985), 장병욱(1997), 강기연(2000)의 연구를 기초로 물리적 환경, 시간, 경제, 대인관계, 지식·기술, 지역사회 및 공공시설 등 자원영역의 총 6문항($\alpha = .71$)을 선정하여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5점에 가까울수록 자원적정 인지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수준인지도는 주부가 자신의 가정생활 수준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생활수준의 범위를 최고(상) 5점, 최하(하) 1점 분포로 구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수준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의사결정 공동참여

의사결정척도는 여러 선행연구(임희규, 1992; 유주희, 1993; 하상희, 1994)의 척도를 기초로 가정경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자녀문제, 가족행사, 여가생활 등 7개 영역의 총 21문항($\alpha = .84$)으로 구성하였

으며,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여 각 의사결정문항에서 의사결정을 '항상 남편'이 할 때 1점, '주로 남편'이 할 때 2점, '부부공동'으로 할 때 3점, '주로 부인'이 할 때 4점, '항상 부인'이 할 때 5점을 주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부부공동'에 3점, '주로 남편'과 '주로 부인'에 2점, '항상 남편'과 '항상 부인'에 1점을 주어 재점수화하여 3점에 가까울수록 부부의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높은 것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4) 가정관리만족도

가정관리만족도 척도는 Newton(1979), 두경자(1991), 이명숙(1996)의 연구를 기초로 주부들이 의·식·주·경제 및 가족원의 가사분담과 수행의 질, 자녀의 성취, 가족의 건강관리, 여가시간과 방법에 대한 가정관리 수행 후 그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관한 총 12문항($\alpha = .92$)으로 구성하였다. 점수는 5점 Likert척도로 '매우 불만족한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관리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100명의 39세 이하의 신세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같은 해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D구, K구, Y구, S구)과 경기도(S시, P시) 소재 어린이집의 학부모들과 아파트단지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그 중 405부를 회수하여 응답이 부실한 34부를 제외하고, 총 371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PC+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배경변인에 따른 의사결정참여도 및 가정관리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관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변인들간의 Pearson's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결정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부언하면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공동 의사결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윤경, 1983; 이형실, 1985; 유주희, 199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자원적정인지도에 따른 의사결정 공동참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정도가 적절하다고 인지하는 신세대 기혼여성집단이 자원의 적절함 정도가 낮다고 인지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 371명)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연령	20대	55(14.8)	사회 인구 학적 변인	학력	고졸이하	127(34.2)
		30대	316(85.2)			전문대·대졸	209(56.3)
	직업	무	191(51.5)			대학원이상	35(9.5)
		유	180(48.5)		월평균 소득	200만원이하	125(33.7)
자녀	무	31(8.4)	201~300만원	135(36.4)			
	유	340(91.6)	301~400만원	69(18.6)			
심리적 변인	성역할 태도	상	32(8.6)	심리적 변인	자원 적정 인지도	상	56(15.1)
		중	274(73.9)			중	254(68.5)
		하	65(17.5)			하	61(16.4)
	의사 소통도	상	60(16.2)		생활 수준 인지도	상	41(11.1)
		중	262(70.6)			중	253(68.1)
		하	49(13.2)			하	77(20.8)

2.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사결정참여도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에 따른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사결정 공동참여는 <표 2>에서 보듯이 의사소통도($p<.001$), 자원적정인지도($p<.05$), 생활수준인지도($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사결정 공동참여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중 집단 이상이 하집단보다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부부는 가정생활에서 늘 대화를 통해 부부가 상의하고 합의하여 함께

는 집단보다 부부 공동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은 가정관리체계에서 동기·요구 등과 함께 주요한 투입의 요소로서 가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Deacon & Firebaugh, 1988)이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신세대 기혼여성들은 실제 자신의 자원을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절히 유효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공동참여가 용이한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수준인지도에 따른 의사결정 공동참여는 자신의 생활수준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중류의식을 갖고 있는 신세대 기혼여성들이 부부 공동으로 의사결

〈표 2〉 배경변인에 따른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사결정 공동참여

변인		구분	의사결정 공동참여	변인		구분	의사결정 공동참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20대	2.34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력	고졸이하	2.35	
		30대	2.37			전문대·대졸	2.38	
		T	-.91			대학원이상	2.32	
	직업 유무	무	2.35		심리적 변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이하	2.35
		유	2.39				201~300만원	2.39
	T	-1.42	301~400만원				2.38	
자녀 유무	무	2.37	401만원이상	2.31				
	유	2.37	F	1.11				
	T	.03	심리적 변인	자원 적정 인지도		상	2.34 AB	
성역할 태도	상	2.33			중	2.39 A		
	중	2.37			하	2.29 B		
	하	2.36		F	3.38*			
	F	.43		생활 수준 인지도	상	2.26 B		
의사 소통도	상	2.39 A			중	2.40 A		
	중	2.39 A	하		2.31 B			
	하	2.19 B	F		7.92***			
	F	12.86***						

*p<.05, **p<.01, ***p<.001

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류계층의 부부는 상호친밀감, 상호통합을 강조하고, 합리성에 근거한 평등을 전제로 부부역할을 수행한다는 Langman(1987)의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될 수 있으며, 생활수준이 중류인 부부가 의사결정시 공동참여가 높다는 하상희(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3.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

배경변인에 따른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는 〈표 3〉에서 보듯이 직업유무(p<.05), 자녀유무(p<.05), 성역할태도(p<.01), 의사소통도(p<.005), 자원적정인지도(p<.005), 생활수준인지도(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이 있는 신세대 기혼여성이 관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주부가 취업함으로써 가정일과 직장일을 수행하는데 오는 과중한 역할부담도 있

지만 가정이나 사회에서 능력있는 존재로 인정받아 자아존중감 향상, 자아실현, 성취감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상쇄되어 가정관리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두경자, 1991; 우이란, 2000)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녀유무에 따른 가정관리만족도에서 자녀가 있는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가 없는 인터넷 사용 주부의 관리만족이 높다는 우이란(2000)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관리만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자녀유무는 결혼지속년수와 상관없이 높아 자녀가 있는 신세대 기혼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지속적인 결혼생활을 통해 보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 숙련된 관리행동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가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수행 결과에 대한 만족감도 또한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역할태도와 가정관리만족도는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인 신세대 기혼여성이 관리만족도가 높은 것으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

변인			구분	가정관리 만족도	변인			구분	가정관리 만족도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연령	20대		3.35	사회 인구 학적 변인	학력	고졸이하	3.31		
		30대		3.32			전문대·대졸	3.33		
		T		-.45			대학원이상	3.32		
	직업 유무	무		3.38		월평균 소득	F		.98	
		유		3.26			200만원이하	3.27		
		T		2.54*			201~300만원	3.31		
	자녀 유무	무		3.14		F			1.87	
		유		3.34			301~400만원	3.34		
		T		-2.16*			401만원이상	3.47		
심리 적 변인	성역할 태도	상		3.56	심리 적 변인	자원 적정 인지도	상	3.69	A	
		중		3.32			중	3.33	B	
		하		3.24			하	2.94	C	
		F		5.08**			F	44.38***		
	의사 소통도	상		3.60		생활 수준 인지도	상		3.54	A
		중		3.31			중		3.36	B
		하		3.08			하		3.07	C
		F		17.40***			F		16.54***	

*p<.05, **p<.01, ***p<.001

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부인의 역할에 대해 이분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융통성있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관리행동 수행 결과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갖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성역할태도를 태도 차원으로 보고 가정관리행동을 실제 행동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할 때 태도가 수행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그 수행 결과로 산출되는 만족감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자유롭고 원활한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가정관리 전반에 있어서 촉진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리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주부의 관리만족도가 높다는 이명숙(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 또는 가

정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태도는 가정관리 및 관리만족도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 결과는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강기연(2000)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수준이라는 것이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의 생활수준이 적당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신세대 기혼여성들은 대부분 가정생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토대로 긍정적으로 가정을 관리하게 되고 따라서 만족감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관리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우이란(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4.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가정관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의 7개 내용 가운데 자녀문제에 관한 의사결정($\beta = .19$)과 식생활 의사결정($\beta = .15$)이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설명력은 6%였다(표 4). 즉 가정생활에서 자녀문제와 식생활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수록 관리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가정관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정관리만족도		F-value와 유의도
		b	β	
의사결정 공동 참여	가정경제	.01	.01	상수 = 3.13 $R^2 = .06$ F = 3.30**
	의생활	-.09	-.09	
	식생활	.15	.15*	
	주생활	.01	.01	
	자녀문제	.15	.19***	
	가족행사	-.09	-.09	
	여가생활	-.03	-.03	

* $p < .05$, ** $p < .01$, *** $p < .001$

특히 자녀문제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수록 관리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가사일과 자녀양육은 부인의 책임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기성세대들에 비해 20·30대의 신세대들은 가사일과 자녀양육은 부부 공동의 권리이며 책임이라는 근대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정관리에서도 자녀문제나 식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들의 의사결정을 부부가 공동으로 수행할 때 이러한 가정관리 과정이 가정관리 산출 결과인 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박민자의 연구(1992)에서 평등한 부부로 인식하는데 강조되는 사항은 세대별로 20대 주부는 가사노동분담, 30·40대 주부는 공동자녀양육과 교육을 함께 하는 것, 50대 주부는 아내의 사회생활을 후원해 주는 등 각자 생활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30대 주부들의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바로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특히 자녀의 사회적 성공이 곧 가정의 성공을 의미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녀를 경쟁력있는 인재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많은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녀에 관한 문제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권리와 책임도 공유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도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신세대 기혼여성들의 자녀문제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관리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 5〉에서 보듯이 배경변인 중 자원적정인지도($\beta = .36$), 의사소통도($\beta = .18$), 생활수준인지도($\beta = .16$), 자녀유무($\beta = .12$), 성역할태도($\beta = .11$), 의사결정 공동참여 영역 중 자녀문제 의사결정 공동참여($\beta = .10$), 식생활 의사결정 공동참여($\beta = .09$)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6%였다. 즉 보유한 자원이 적정하다고 인지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수록, 자신의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그리고 자녀문제와 식생활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수록 신세대 기혼여성의 관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원적정인지도로 밝혀졌는데, 이 결과는 중년기 주부의 자원적정감이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정진희(1998)의 연구결과와 주부의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전지원(200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맥상통한다. 즉 가정관리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표 5〉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

독립변인	가정관리만족도		F-value와 유의도
	b	β	
자녀유무	.21	.12*	상수 = .85 R ² = .36 F = 25.29***
성역할태도	.11	.11*	
의사소통도	.10	.18***	
자원적정인지도	.31	.36***	
생활수준인지도	.14	.16***	
식생활 의사결정 공동참여	.08	.09*	
자녀문제 의사결정 공동참여	.09	.10*	

∴ [자녀유무]: 무=0, 유=1

*p<.05, **p<.01, ***p<.001

있는 다양한 원천의 자원(물리적·경제적·인적·사회적 자원 등)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은 실제 가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지자원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가정관리자의 심리적인 지지자원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가정관리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켜주는 촉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간의 의사소통도 역시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나, 현대 생활에서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에서 거리감을 좁히고 친밀감을 유지시켜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반적인 가정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가정관리의 핵심적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월평균소득은 가정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세대 기혼여성의 관리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아 월평균소득이라는 객관적인 자원의 양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소득액이더라도 가정관리자가 자신의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인식 또는 타 가정의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인식이 관리만족도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즉 개인의 만족감을 결정하는데는 객관적 조건보다는 각 개인의 평가기준에 근거한 상황의 인지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세대 기혼여성들은 의사결정의 내용 중 가정생활에서 자녀문제와 식생활에 관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수록 가정관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등주의 가치관과 '동반자적 가족' 모델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한 소자녀화 추세와 자녀양육 및 교육열의 증가 추세에 따라 자녀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 20·30대의 신세대 기혼여성들은 가정관리시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여 부부가 함께 자녀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가 관리의 과정과 산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만족감이 더욱 증진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각 분야 인사 510명이 제시한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한 진단에서 평등한 부부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범주는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면으로 나타났고, 특히 가사와 자녀양육분담에 대한 관심이 중요요소로 나타난 결과(정무장관 제2실, 1994)와 또한 부부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부부관계는 기회균등을 통한 공평한 자원의 분배와 솔직하고 정당한 협상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Goode, 1963)이라는 의견, 그리고 '평등 부부상'을 받은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부부의 '지분'이 같다(동아일보, 1999. 7. 18)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사결정 공동참여는 의사소통도, 자원적정인지도, 생활수준인지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정관리만족도는 직업유무, 자녀유무, 성역할태도, 의사소통도, 자원적정인지도, 생활수준인지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공동참여 내용 중 식생활과 자녀문제에 관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

수록 가정관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은 심리적 변인인 자원적정인지도, 의사소통도, 생활수준인지도, 성역할태도,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자녀유무, 의사결정 공동참여 내용 중 식생활과 자녀문제 의사결정 공동참여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정관리만족도를 36% 설명해주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관리만족도는 공통적으로 자원적정인지도, 의사소통도, 생활수준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주부들 또는 중년기 여성이나 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세대 기혼여성들의 의사결정 공동참여나 관리만족도에는 객관적 변인보다 주관적 변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신세대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보다 건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된다면 다양한 어려움이 혼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인중심적이고 물질지향적인 신세대 가정관리자들은 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건전한 사고와 태도를 토대로 가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신세대 기혼여성들이 특히 자녀문제와 식생활에 관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수록 가정관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양질의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20·30대 신세대들에게는 무엇보다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특히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의논하고 결정하여 자녀에 대한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의무를 공유할 때 결과적으로 만족감이 더욱 증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생활이나 자녀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결정사항들에 대해 가정관리의 공동 주체인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고 공동으로 가정관리행동을 수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권리와 의무, 책임까지 공유하는 평등한 신

세대 부부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우애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과거에 비해 오늘날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는 평등규범이 출현하고 있어 기성세대 보다는 신세대 부부들은 좀더 평등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규범과 가치관이 가정생활에 직접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부부단위의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는 물론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삼자체계를 연계한 평등규범 교육 및 바람직한 성역할 교육과 가정생활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평생교육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정관리만족도에는 무엇보다 심리적 변인들인 자원적정인지도, 의사소통도, 생활수준인지도, 성역할태도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은 대부분 개인의 가치관이나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인식 또는 태도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치나 태도에 관한 심리적 변인들은 가정관리체계에서 중요한 투입요소로 작용하여 관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신세대 기혼여성들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합리적인 가정관리를 통해 만족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가 중핵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긍정적이고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를 정립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결국 가정관리자 자체가 개인의 행복 및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자질 및 능력을 계발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신세대 기혼여성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물론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관리만족도에 대해서만 고찰하였다. 앞으로는 신세대 부부를 공동 대상으로 하여 가정생활에서 의사결정 공동참여에 대한 정도와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신세대와 중년세대 그리고 노년세대를 함께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 세대별 특성을 포괄하여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공동참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화된 의사결정척도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기연(1989). 주부의 자아실현성과 부부간 의사결정 유형간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2) _____(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 ·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사무직, 관리 · 전문직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3) 김윤경(1983). 가정생활의 의사결정행동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4) 두경자(1991). 가정관리체계모형의 실증적 검증-서울시내 주부의 가사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5) 성유진(1995). 취업주부의 시간갈등수준 및 시간관리전략과 가정관리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6) 손현숙(1995). 주부의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 (1), 35-46.
- 7) 우이란(2000). 정보사회에서의 인터넷사용여부에 따른 가정관리만족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8) 유주희(1993). 도시부부의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9) 이명숙(1996). 도시 전업주부의 가치지향성 · 가정관리전략 · 가정관리만족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0) 이정우 · 박은아(1995).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치성향,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 34, 65-100.
- 11) _____ · 윤현희(1998). IMF 관리체계 이후 도시 취업 ·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 비교 연구, 숙명여대 건강 · 생활과학연구지 13, 31-49.
- 12) _____ · 정진희(1998).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도시 중년기 주부의 의사결정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53-65.
- 13) 이형실(1985).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4)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15) 임혜경(1994).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간의 인과관계.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16) 임희규(1992). 부부의 의사결정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17) 장병옥(1997). 취업 주부의 부부 역할수행 · 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8) 전지원(2000). 도시주부의 부부간 공평성 인지 ·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19) 최동숙(1991).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20) 최영애(1982). 도시주부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의사결정의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21) 하상희(1994).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참여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22) 홍은실(1990). 주부의 가치지향과 의사결정양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23) Heck, R.K.Z.(1983).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17-135.
- 24) Newton, D.L.(1979). Managerial behavior,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management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 25) Nickell, P., Rice, A.S. & Turker S.P.(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26) Paolucci, B., Hall, O.A. & Axinn, N.W.(1977). *Family Decision making : an ecosystem approach*. New York : John Wiley & Sons.
- 27) Scanzoni, J(1982). *Sexual bargaining : Power politics in the American marriage*.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